

전북

‘귀농의 고장’ 고창·김제

10년간 정착 도시민 1·2위 차지

전북 지역 귀농자 중 고창과 김제에 정착하는 도시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최근 10년(2001~2010년) 간 도내로 귀농·귀촌한 도시민을 분석한 결과 고창군이 397가구로 가장 많았고 김제시(385가구), 진안군(335가구), 순창군(295가구), 장수군(291가구), 정읍시(28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북에는 3197가구가 귀농해 경북(4977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귀농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주택 신축과 구매를 위한 자금을 4000만 원(연리 3%·10년 상환)까지 빌려주고 주택수리비를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년층 귀농인을 위해 장수 송천지구와 고창 월곡지구에 각각 100세대의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식품 사관학교에서는 귀농·귀촌 전문과정을 운영해 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농업인 영유아 교육비를 월 27만 6천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hnews@

남원·순창 재선거 막판 혼탁

후보간 뒷거래·합의각서까지 공개돼

금품·지분 나눠먹기...유권자들 공분

10·26 재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에 출마한 후보 간의 은밀한 뒷거래와 이번 합의각서가 공개되면서 선거관이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거래가 시장·군수가 가진 지분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장 재선거에서는 후보 간에 시장직과 국회의원직을 나눠갖자는 이번 합의각서가 공개됐다. 남원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김영권 후보는 20일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최종근(무소속·전 남원시장) 후보와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 때 서로 도와주자’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공개

했다. 합의서에는 최 후보는 지방선거 때 김 후보를 도와주고, 김 후보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 후보를 돕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후보는 “최 후보의 대리인이 대신 왔다고 하며 합의서를 받아갔다”고 설명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 후보는 “내가 합의서에 (도장) 찍은 일도 없으며, 그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라며 “나와는 전혀 무관하며 이번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리려는 중상모략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순창군 재선거에서도 이흥기(무소속) 후보가 조동환(전 순창교육장) 예비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

에 구속됐다. 거래대상은 금품과 함께 군수 권한의 일부였다. 이 후보는 조 예비후보에게 지원을 부탁하며 ‘인사권·사업권 등 군수 권한의 3분의 1을 주겠다’며 매수를 시도했다. 이 후보 측은 ‘조씨가 선거보전비용 2천만 원 지원 등의 제안을 했으나 나중에 거절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두 사람 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매수시도의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에는 선거준비에 사용된 비용 보전과 균형 공무원의 인사권을 거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 측은 합의의 정면 부인, “공직정치의 회색양이 됐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옥중출마했다. 이처럼 남원·순창 모두 유권자의 선택보다는 후보자 간의 밀실 야합을 통해 시장·군수직을 거래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필뉴스

“군산항 날림먼지 걱정마세요”

하역작업 발생 먼지 차단 방진벽 공사 연내 착공

군산항 부두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진벽 공사가 연말까지 착공된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과 타타대우상용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군산항 인근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한 업체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은 “당초 내년으로 계획했던 군산항 방진벽 설치공사가 앞당겨 연말까지 착공하기로 했다”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 3년 안에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24일 밝혔다. 방진벽이 설치될 부두는 군산항 5부두, 6부두, 7부두, 모래 부두 등 4곳이다.

방진벽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시행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총 2천858m 구간에 6.5~11m 높이로 설치된다. 항만청은 우선 7부두와 모래 부두 구간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앞으로 예정되는 예산에 따라 5부두와 6부두에 차례로 방진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항만청 관계자는 “당초 내년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20억원이 조기에 확보돼 공사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며 “방진벽 설치에 앞서 다음 달부터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막걸리 칵테일 시음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열린 ‘한국음식 관광축제’와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에서 젊은 여성들이 발효식품인 형형색색의 막걸리 칵테일을 맛보고 있다. /연필뉴스

군산항 컨 물동량 10만TEU 돌파

올 목표 12만TEU 무난할듯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10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돌파하는 등 올해 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24일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20일 현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10만 552TEU를 기록했다.

6 부두에 있는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7만8468TEU를, 국제여객부두에서 2만2084TEU를 각각 처리한 결과다.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는 한국 GM과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데다 국제 여객선의 정기운항이 활성화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군산 지방해양항만청과 전

북도, 군산시가 지난해부터 선주와 선사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펼친 ‘포토세일’도 한 몫했다. 군산항만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목표량인 12만TEU 달성은 무난할 것 같다”면서 “군산~부산간 연안 피더항로가 개설되고, 포트세일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면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군산항 개항 111년 만인 지난해 연말 처음으로 10만TEU를 넘어섰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 노암동에 대규모 농공단지 조성

255억 투입 32만㎡ 내달 착공

남원시 노암동 일원에 대규모 농공단지가 조성된다. 남원시는 255억원을 투입해 32만㎡ 규모의 ‘노암 제3농공단지’를 다음 달에 착공해 오는 2013년 6월까지 완공한다. 이번엔 조성되는 노암 제3농공단지에는 식품, 음료제조업 및 금속가공 제품, 전자부품 제조업 등 20여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노암 제3농공단지와 앞서 조성한 여현 농공단지, 노암 제1농공단지, 노암 제2농공단지 등 43만㎡ 규모의 4개 농공단지 하 하나의 공업단지를 형성할 경우 공장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1986년 처음 조성된 인월 농공단지를 비롯해 총 6개(73만㎡) 농공단지를 조성해 65개 기업을 유치, 1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전주 삼천 상류 반딧불이 500여마리 서식

전주의 대표 하천인 삼천 상류에 반딧불이가 대거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성장팀 관계자는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 곤충에 비해 약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환경이라면 각종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최적의 조건이 될 것”고 분석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hnews@

km) 구간에 반딧불이 500여 마리가 서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녹색성장팀 관계자는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 곤충에 비해 약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환경이라면 각종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최적의 조건이 될 것”고 분석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hnews@

익산시 ‘복지정책 평가’ 3개 부문 수상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인 익산시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4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석권했다. 익산시는 이번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평가에서 ‘최우수’, 통합사례 관리 평가에서 ‘준우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평가에

서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3개 분야를 수상한 자치단체는 익산시와 순천시뿐이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50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게 됐다. 한편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남원 실상사 중창불사 추진위 발족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주지 해강 스님) 중창불사(重創佛事)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지난 22일 열렸다. 실상사는 지난 2008년 불사 세미나를 시작으로 2009년 실상사선언 ‘불사실조’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불사 기본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3월 문화재청의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이 완료

되면 불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 3년(828년) 홍척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구산선문 중 으뜸 사찰이다. 국보 제10호로 지정된 백담암 삼층석탑을 비롯해 보물 12점과 도지정 문화재 5점이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105억 들여 침수피해 예방 빗물 저류시설 설치

김제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요촌동 중앙초등학교와 옥산아파트 부근에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우수(雨水)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한다. 그동안 김제시 시가지는 평야 지인 특성 때문에 우천시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돼 왔다. 시는 저류조 주변을 공원화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상류에서 담수되는 빗물을 하천 유지수와 농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고창군의회 내일까지 임시회 ... 2개 특위 구성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196회 임시회를 열고 2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고창군의회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군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하기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고창군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승인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hnews@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임용지·주거용지·이주지역·협업지역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지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지형) 광산구비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복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광산구 신창동 보건대학교 앞 4차선 도로점 시내버스 승강장 옆 대지4,190㎡(약1,268평) 건물3,130㎡(약947평) 보증금955천만원 월세2,400만원 매매가 47억원

동명공인중개사 [상가 매매] ▶광주상가건물 5800㎡(매매가 60억원(용지34억원) 직영운영시 연건수익 8억원이상,성업중 주차시설완비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박스 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450평 -전용면적: 300평 -매매금액: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